

조선대학교 개교 60주년



국내 10위권·지방 거점대학 도약

■지나온 60년 다가올 60년

조선대가 29일로 개교 60주년을 맞는다. 조선대는 지난 60년 동안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호남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 우뚝 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나온 60년=조선대는 해방 직후 민족국가 수립에 기여할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설립했다.

지난 1946년 8월 발족한 조선대학 설립동지회는 그해 9월9일 조선대의 모태인 광주야간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아 9월29일 4학부 12학과 1천194명의 정원으로 개교했다.

이후 조선대는 1948년 5월 재단법인 조선대학 설립인가·조선대학으로 개편, 1953년 조선대

1946년 4개 학부 시작 20만여명 인재 배출

생명공학 등 특성화 선도 'Top 5' 육성

학교로 승격·대학원 설립 등의 과정을 거쳐 종합대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본격적인 지역 인재 양성에 들어갔다.

지난 1980년대 학원 민주화 문제로 큰 혼란과 함께 대학 존망의 위기를 겪었지만 모든 구성원이 합심해 극복했다.

◇다가올 60년=지역민의 성원 속에서 성장해온 조선대는 오는 2010년 국내 10위권, 세계 500위권 연구력에 진입하는 지방중핵대학, 산학협력중심대학을 꿈꾸고 있다.

조선대는 정부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서 이머지먼트를 거두며 지역거점대학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

조선대는 학부를 위한 누리사업에서 전국 1위, 대학원 대상의 2단계 BK21사업에서 지방 사립대학 중 1위를 각각 차지했다.

조선대는 지역과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발전속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부품소재 산업, 문화정보산업, 생명공학, 에너지환경, 국제협력 등 5대 부문을 특성화분야로 확정해 추진 중이다.

▲한대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조선대 출신 유명 인사들

이돈명 변호사·양형일 의원·박광태시장 등

조선대 출신 인재들은 정·관·재계 등에 두루 포진, 학교의 명예를 빛내고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수(의학 27회)도 조선대 출신이다. 김세욱 청와대 경호실장(법학 12회)도 조선대를 나왔다.

공사 대표이사(토목공학 17회),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토목공학 18회), 문주호 한솔제지 대표이사(경제학 20회), 박인구 (주)동원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법학 20회), 박화송 한국디지털위성방송 부사장(법학 19회), 박희석 한독화장품(주) 대표이사(약학 14회), 서 구 금호아시아나 고문(상학 19회), 손학래 한국도로공사 사장(토목공학 15회), 하상용 마마트 대표이사(전자공학 32회) 등이 눈에 띈다.

▲한대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호남 최고 명문사학 자부 취업 중심대학으로 육성”

■김주훈 총장



-개교 60주년을 맞은 소감은. ▲민족국가 수립에 기여할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는 민족적 자각을 바탕으로 그동안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호남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 우뚝 섰다고 자부한다.

▲최근 신입생 모집 경쟁이 과열되면서 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내세워 신입생을 '모셔가는' 대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대학이 경쟁력 제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60년을 맞이하는 조선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교육 분야는 취업률 제고, 연구 분야는 연구실적 향상, 행정 분야는 원가 절감 내지는 서비스개선에 초점을 맞춰 중점 추진하고 있다.

교육은 신입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뒤 본인이나 원하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조선대 법인은 다른 법인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임시이사 파견된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경제적 기여 있는 설립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 포함적으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의화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조기 전환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선도 분야로 육성할 방침이다.

▲조선대는 전국 대학 중 가장 먼저 캠퍼스 담장을 허물고, 캠퍼스 공원화 사업을 추진했다.

▲한대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enchuri' (센추리) insurance products, featuring a man and various insurance benefits like '152 million won' and '75% premium reduction'.

Advertisement for 'Bessal' (벡살) and 'Bibbi' (비비) products, including a 'Bessal Bibbi' advertisement and a 'Bessal Bibbi' advertisement.